

2019년 2월 1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국가비상사태 선포 우려 속 혼조 마감 Wsj,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대량 구입하는 것을 논의 중”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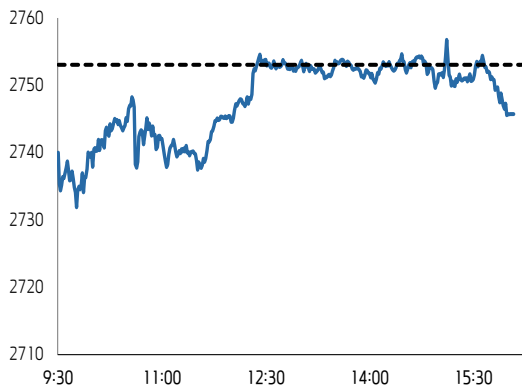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미 증시는 섣다운 여파로 발표가 늦어졌던 12월 소매판매가 예상을 하회하자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낙폭 축소되거나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음. 다만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한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재차 매물 출회되며 혼조 마감(다우 -0.41%, 나스닥 +0.09%, S&P500 -0.27%, 러셀 2000 +0.14%)

미국 섣다운 여파로 발표가 미뤄졌던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발표됨.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음. 12월 소매판매는 연말 쇼핑시즌 결과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중요했던 만큼 부진한 발표로 미국 경기 둔화 이슈가 재부각 되는 경향을 보임. 더불어 미국 11월 기업 재고 또한 소매재고(mom -0.4%) 위주로 전월 대비 0.1% 감소한 점도 부담. 이에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의 2.7%에서 1.5%로 하향 조정. 애틀란타 연은은 “4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3.7%에서 2.6%로 하락 했으며, 4분기 실질 GDP 성장에 대한 재고 투자 기여도는 -0.27%에서 -0.55%로 하락했다” 라고 발표. 한편, 장 막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한 이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미국 정치 마찰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부각으로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을 높이는 이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날 발표된 12월 소매판매는 섣다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아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섣다운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 이라고 주장.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12월 소매판매 둔화는 눈길을 끄는 요인이지만, 한달 지표에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다” 라고 언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225.85	+1.11	홍콩항셱		28,432.05	-0.23
KOSDAQ		742.27	+0.32	영국		7,197.01	+0.09
DOW		25,439.39	-0.41	독일		11,089.79	-0.69
NASDAQ		7,426.96	+0.09	프랑스		5,062.52	-0.23
S&P 500		2,745.73	-0.27	스페인		8,952.50	-0.33
상하이종합		2,719.70	-0.05	그리스		654.03	-0.31
일본		21,139.71	-0.02	이탈리아		19,834.96	-0.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코카콜라 급락

마이크론(+1.32%)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현재의 5배인 6년간 2천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했다. 시스코시스템즈(+1.89%)는 양호한 실적발표 및 배당금 인상, 자사주 매입 발표로 상승 했다. 마라톤오일(+8.75%)도 양호한 실적 발표했으며, 2019년 원유 생산량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도 상승 요인이었다. 이에 힘입어 코노코필립스(+1.95%) 등 여타 셰일 오일기업들도 동반 상승 했다. 음료용기 제조업체인 예티(+17.36%)도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급등 했다.

코카콜라(-8.44%)는 예상을 하회한 2019년 가이드스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 AIG(-9.03%)은 예상을 크게 하회한 실적 발표로 급락했다. 주식 운용 및 대출 시장 부진이 원인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JPM(-0.65%), BOA(-1.08%), WFC(-1.02%)등 금융주가 하락 했다. 겨울코트 제조업체인 캐나다 구스(-12.94%)도 부진한 건조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출 출회되며 하락 했다. 호텔및 카지노 업체인 MGM(-6.36%)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했다. 원리조트(-2.66%)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31%	대형 가치주 ETF(IVE)	-0.40%
에너지섹터 ETF(OIH)	+0.53%	중형 가치주 ETF(IWS)	-0.29%
소매업체 ETF(XRT)	-0.20%	소형 가치주 ETF(IWN)	0.00%
금융섹터 ETF(XLF)	-1.22%	대형 성장주 ETF(VUG)	+0.02%
기술섹터 ETF(XLK)	+0.17%	중형 성장주 ETF(IWP)	+0.0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9%	소형 성장주 ETF(IWO)	+0.38%
인터넷업체 ETF(FDN)	+0.15%	배당주 ETF(DVY)	-0.16%
리츠업체 ETF(XLRE)	+0.3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0%
주택건설업체 ETF(XHB)	-0.1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9%
바이오섹터 ETF(IBB)	+0.43%	미국 국채 ETF(IEF)	+0.47%
헬스케어 ETF(XLV)	+0.43%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23%	물가연동채 ETF(TIP)	+0.28%
반도체 ETF(SMH)	+0.29%	Long/short ETF(BTAL)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8.27	+0.15%	+2.37%	+4.40%
소재	336.83	-0.55%	+1.92%	+3.91%
산업재	627.44	-0.59%	+2.28%	+10.08%
경기소비재	860.57	-0.44%	+1.51%	+3.59%
필수소비재	553.24	-1.22%	+0.65%	+4.41%
헬스케어	1,058.05	+0.23%	+1.88%	+3.59%
금융	429.09	-1.16%	+0.28%	+1.66%
IT	1,210.29	+0.12%	+2.13%	+7.85%
커뮤니케이션	152.67	+0.22%	+0.97%	+2.86%
유틸리티	280.89	-0.31%	-0.04%	+4.69%
부동산	215.67	+0.45%	+0.64%	+7.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관련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2% MSCI 신흥지수 ETF 도 0.1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375 계약) 여파로 0.90pt 하락한 287.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5.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옵션만기일을 맞아 중국 증시 하락폭 축소 및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1.11% 상승 마감 했다. 한국 증시는 수급에 의한 상승폭 확대였다는 점을 감안 장 초반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미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이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대량 구매 가능성이 제기된 데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도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서 여전히 지적재산권과 관련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3 월 2 일 추가 관세 부과를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관세 발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데드라인 60 일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여전히 한국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매판매 부진

12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mom +0.1%0) 를 하회한 수치다. 운송을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8% 감소했으며,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판매 또한 1.4% 감소 했다.

11 월 미국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mom +0.2%) 를 하회한 수치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9 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22.5 만 건)을 상회 했다. 4 주 평균 신청건수도 23 만 1,750 건으로 지난주(22 만 5 천건) 보다 증가 했다.

1 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0.1% 하락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mom +0.2%)를 하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국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감소 그리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미국 소매판매가 둔화된 점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소매판매 둔화로 여타 환율에 약세로 출발 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관련 정부안에 대한 표결에서 또다시 부결 시키자 한때 강세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미국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자 재차 약세로 전회했다.

국채금리는 미국 소매판매 둔화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자산 축소를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미국 경기 둔화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금리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하자 하락했다.

금은 미국 소매판매 둔화 및 영국 브렉시트 우려 부각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 하락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 기대감 및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속에 보합권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상승 했으나 철근은 1.4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4.41	+0.95	+3.36	Dollar Index	97.050	-0.08	+0.56
브렌트유	64.57	+1.51	+4.77	EUR/USD	1.1292	+0.28	-0.43
금	1,313.90	-0.09	-0.02	USD/JPY	110.52	-0.44	+0.64
은	15,528	-0.79	-1.18	GBP/USD	1.2796	-0.39	-1.20
알루미늄	1,850.00	-0.54	-2.32	USD/CHF	1.0054	-0.38	+0.33
전기동	6,137.00	+0.20	-1.75	AUD/USD	0.7101	+0.16	0.00
아연	2,591.00	-0.23	-5.13	USD/CAD	1.3294	+0.30	-0.11
옥수수	383.00	-0.97	-0.33	USD/BRL	3.7193	-1.06	+0.05
밀	510.50	-2.95	-1.26	USD/CNH	6.7768	-0.10	-0.11
대두	917.75	-1.40	-1.02	USD/KRW	1125.10	+0.30	+0.09
커피	101.45	-0.83	-5.45	USD/KRW NDF1M	1125.45	+0.03	+0.1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652	-5.03	-0.54	스페인	1.239	+0.80	0.00
한국	1.980	-1.00	-1.20	포르투갈	1.569	-2.30	-8.60
일본	-0.014	-0.80	-0.60	그리스	3.842	-5.00	-14.20
독일	0.103	-2.00	-1.20	이탈리아	2.801	+1.90	-14.70